다락방 모임 리더 해설지 (10/4 주간)

환대의 사람, 기쁨의 하나님 (창18:1-15)

1.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의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합니까?(2-8절) 그가 알지 못하고 환대했던 나그네가 사실 누구였습니까?(1절)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1)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달려나가 민첩하게 환대합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날이 뜨거울 때"에도 장막 문에 머물러 있다가(1절), 낯선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민첩하게 달려나갑니다. 이어 몸을 땅에 굽혀 겸손히 예를 표하며 발 씻을 물과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청하면서 손님들을 정성껏 영접합니다(2-5절).

(2) 아브라함의 환대는 말에 신속하고 풍성한 최고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 떼로 "달려가서"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게 합니다. 여기에 "엉긴 젖과 우유"를 꺼내어 잔치 수준의 식탁을 차려놓고, 정작 자신은 손님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직접 시중을 들며 완벽한 환대의 모범을 보여줍니다(6-8절).

(3)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환대했던 낯선 나그네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막과 목초지를 오가는 유목민과 상인들에게 환대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문화의 핵심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극진한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처럼, 아브라함에게 환대는 단순한 대접을 넘어 메마른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 신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통로였습니다.

나눔 **아브라함은 무더위와 피곤함 속에서도 나그네를 위해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며 환대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려 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2. 성경은 환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합니까?(히13:2,딛1:8)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딛1: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1) 성경은 손님 대접(환대)을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이자 리더의 최우선 덕목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며 아브라함의 사건을 들어 환대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의 감독(장로)을 세울 때 지녀야 할 긍정적인 최우선 덕목으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딛 1:8)를 꼽을 만큼 환대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2) 초대교회 또한 기도와 예배만큼이나 열정적으로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교리문답서 《디다케》는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힘써 도울 것을 권면했고, 교부 크리소스톰은 환대를 종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반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대는 일상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실천이었습니다.

(3) 환대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환대의 처소이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주인공이 문을 열고 기다리던 '환대하는 아버지'이듯,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성도에게 환대는 세상을 거스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맞이하시고, 천국으로 맞이해 주실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할 때, 지금 내 삶의 자리(가정, 직장, 교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맞아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천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9-10절)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 천사들은 사라에게 기쁨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중을 받으며 음식을 먹던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9절) 물으신 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0절)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2)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갈망에 응답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창1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18장에서 다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사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번 방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개인적 갈망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 하나님(엘샤다이)로 계시하셨던 것과 달리, 18장에서는 여호와(야훼)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훨씬 더 친근하게 찾아오십니다.

(3) 아브라함의 환대는 약속의 성취에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7장의 언약과 18장의 약속 사이에 아브라함의 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7:1)는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풍성한 환대를 실천함으로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에 대해 기쁨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4) 엘리사를 환대했던 수넴 여인도 아들을 얻었습니다. 환대(Hospitality)에 대한 보상으로 생산과 번성(fertility)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환대는 단순히 피곤하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나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섬길 때, 내가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12-15절)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 사라는 천사들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녀는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자신이 늙었고 남편도 늙었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겠느냐며 속으로 웃습니다(11-12절). 앞선 할례 언약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사라의 웃음은 이미 모든 희망과 기대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나온 당황스러운 웃음입니다.

(2) 하나님은 사람의 숨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숨은 생각까지 정확하게 읽으시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14절)고 반문하십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웃었느니라"(15절)고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사라의 숨은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태를 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의 아들(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반전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황스러운 웃음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4)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대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이삭들'을 보내주십니다. 환대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수많은 자녀 세대들과 이웃들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에게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우리가 기꺼이 환대를 실천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수많은 '기쁨의 자녀들'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 내가 실천해야 할 작은 환대를 생각해 봅시다.**